'예산안 · 교수 임용'등 시간 다투는 안건 많은데…

헛도는 동국학원 이사회

이사회의 두차례 성원미달… '파행' 우려 확산

새 이사장 선출 후유증, 교계 '화합' 주문

동국대 재단 이사회의 내분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지난 1월 말 새 이사장이 선출된 이후 소집된 이사회가 연거푸 두 번이나 성원미달로 무산되면서 파행 운영에 대한 우려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현해)은 2월 18일 제147회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지난 6일에 이어 이사 6명만이 참석, 성원 미달로 자동 유회됐다. 지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사 5명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속사정이야 어쨌든 연이은 이사회 무산은 갈길 바쁜 학교 발목을 잡은 꼴이 돼 버렸다. 새 학기 개강을 목전에 두고 소집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올 예산안, 학교 재정 확충을 위한 산학협력단 구성, 신규 교수 임용 등 시간을 다투는 중요 안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일산불교종합병원 개원을 위한 정관 개정도 막바지에 몰린 상황이다.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개원을 위해 학교측이 잡고 있는 최소 준비 기간은 14개월. 의료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한 달여의 모의실험, 3개월의 예비 진료를 기본 뼈대로 예상한 기간이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에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학기 단위로 움직이는 의료계 인력 수급 시기를 놓치면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활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련의 배정이 필수적인데, 수련의 지정 신청 기간도 4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관에 불교병원 조직과 기구, 인력 등이 명시돼야 가능한 일들이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사들이 이사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사장 선출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지난 1월 27일 신임 이사장 선출 당시 종단 정치의 역학 관계에 따른 정략설 등이 제기됐고, 앞으로 일부 이사들의 입김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때 생긴 감정의 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 무산이라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사들에게 먼저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이사장이 풀어야 할 듯하다.

교계의 한 중진 스님은 "신임 이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을 지지한 이사들뿐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이사들까지 감싸 안아 '동국학원 이사장'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8일 참석한 이사들끼리 가진 간담회에서 현성 스님도 "이사장 스님이 오늘 불참한 이사 스님들 전부 직접 찾아가 큰절 올리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홍기삼 총장의 '역할론'도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명의 이사이기에 앞서 '동국대 총장'이라는 역할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사회 내에서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동국대 교수회장 염준근 교수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무엇보다 '화합'이 필요한 시기"라며 "불자들이 늘 하는 말처럼 먼저 하심(下心)하는 것만이 해결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이사회는 26일께 열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식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역사문화기념관 17일 1차 준공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식 및 마애삼존불 제막식이 2월 17일 역사문화기념관 1층 현관에서 봉행됐다.

준공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는 새로 지은 역사문화기념관에 입주식을 갖는 오늘 이 순간부터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며 "종도와 사부대중들은 무엇이 불교중흥과 종단발전에 기여하는 길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철 문화관광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역사문화기념관 개관은 민족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불교문화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원만하게 이뤄져 조계사 일대가 인사동, 우정국로 등 주변의 문화시설과 어우러지는 종합 문화관광벨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윤제 청와대불자회장도 축사에서 "2차 공사 역시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길 기원한다"며 "청불회도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편 행사에는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들과 백창기 전국신도회장, 김수연 문광부 종무관,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맑은 정치 불교연대' 발족

총선 불자 선택기준 제시

17대 총선을 앞두고 불교계 13개 단체들이 '맑은 정치 불교연대'를 발족시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회개혁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불교단체들은 2월 19일 만해교육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2004 총선 불자 선택기준 및 행동지침 △불교오피니언 그룹 설문조사 실시 △불자 총선 clean선언 운동 △타종교 총선연대와의 연대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다.

불교연대는 선택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깨끗한 정치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화합시킬 수 있는 정치인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중시하는 정치인 △종교, 이념, 정파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미덕을 갖춘 열린 정치인 등을 제시했다. 또 행동지침으로 △자정 △참여 △정법 등을 내놓았다.

설문조사는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교구본사,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clean선언 운동은 사이버 기원 등 달기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4월 중순 완공 예정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이 오는 4월 중순 쯤 완공될 예정이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공사 중간 점검 차 스리랑카를 방문한 사회국장 효웅 스님은 "현재 공사는 60~70% 정도 진행됐으며 4월 중순 쯤 완공 될 예정"이라며 "완공식 때 총무원장 스님이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리랑카 라트나푸라 지역에 조성되는 조계종 마을은 스리랑카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조성되며, 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108여 채와 사찰, 보건소, 유치원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남동우 기자**

원혜·원융 스님 재심 연기

보우당 불사와 관련해 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소송을 냈던 간월암 원융 스님의 재심이 연기됐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월서)은 2월 17일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5차 재심호계원을 개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 유럽에 알린다

현각 스님, 4월 佛 공영TV 출연

英 · 獨 · 스페인 순회강연 계획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이 유럽으로 만행을 떠난다.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다.

한국관광공사 파리지사는 현각 스님이 파리지사의 초청으로 올 4월 프랑스를 방문, 공영 2TV '부처의 음성(Voix Bouddhistes, 일요일 오전 8시 30분~45분 방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의 특징과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2월 18일 밝혔다.

현각 스님은 TV 녹화 외에도 현지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며 불교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의 대담도 예정돼 있다.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의 순회 강연회도 추진 중이라고 파리지사는 밝혔다.

프랑스는 불교신자가 전체 인구의 1%인 60만 명에 이르고, 지난 2000년부터 공영TV에 불교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정도로 유럽 어느 나라보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 하지만 틱낫한 스님의 영향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베트남 불교와 일본 선불교에 비해 한국불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한국 절은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지사 박재석 차장은 "현각 스님의 유럽 방문은 한국의 간화선 등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불교 고유의 매력을 유럽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템플스테이, 참선, 발우공양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방한 관광 상품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부처님오신날 준비 박차

자비의 손길 · 봉축행사 지원 신청 받아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5월 26일)을 앞두고 봉축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자비의 손길, 봉축행사 지원신청'은 불교문화를 소재로 한 전시, 학술, 공연, 경연행사 등이 포함된 '봉축행사'와 어려운 이웃돕기 프로그램, 자비실천 행사 등이 포함된 '자비의 손길'로 대상이 나뉘어 실시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 현황 및 활동실적자료 등을 첨부해 3월 15일까지 봉축위원회(02-2011-1744)로 접수하면 된다.

전통등 문화의 현대적 복원과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 경연대회'는 4월 12일~15일 봉축위(02-2011-1747)와 파라미타 사무국에서 접수받는다. 5월 23일 오전 12시부터 오후8시까지 조계사 앞길에서 열리는 '불교문화마당' 희망 참가자 및 단체는 4월 9일까지 봉축위(02-2011-1747)로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불교문화마당은 △놀이마당 △전통문화마당 △나눔마당 △NGO마당 △국제불교마당 △먹을거리 살거리 등의 참여프로그램로 꾸며진다.

한편 올해 봉축표어 공모 결과 밀교신문사 허미정 기자의 '부처님과 함께 희망을'과 권오국 중앙신도회 교육팀장의 '하나되는 부처님 세상'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남동우 기자**

현공 · 원문 스님 승가학원 새 감사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법장)은 2월 24일자로 감사 3명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18일 제65회 이사회를 열어 2년 임기의 새 감사에 현공 스님(종회의원)과 원문 스님(서울 약수사 주지)을 새로 선임했다. 수완(전 종회의원) 스님은 재선임됐다.

권형진 기자

목탁소리

불사금 횡령 의혹

계룡산 무상사 국제선원의 한 신도로부터 2월 19일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 즉, 무상사 대웅전 건립을 둘러싸고 공금횡령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신도는 "무상사 측이 공사 도급자 A씨와 8억9천5백만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했는데, 공사관리를 책임졌던 무상사 이사 B씨가 1억6천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사에 참여했던 6개 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 중 5천4백만원을 받지 못해 반발하고 있고, 신도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업체 관계자인 C씨는 "이 같은 얘기는 모두 사실이며, 이 사회에 몇 차례 진정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조직적으로 B씨를 감싸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B씨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에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펄쩍 뛰었다. 횡령의혹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근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은 "무상사는 공사대금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잡음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시비는 명확히 가려야 한다. 그것은 무상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봉 창종 13주년 기념 및 운허당 연화 대종사 제3세 종정취임 대법회 축

삼보에 귀의하옵고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에서는
창종 13주년 기념 및 운허당 연화 대종사의
제 3세 종정취임 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원로대덕스님과 사부대중께서는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48년 2월 10일(양력 2004년 2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국 상북면 등억리 698-1중앙교육원
TEL. 052)264-6487~8

※ 참석스님께서는 장삼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회

● 고 문 : 석정업, 강연봉, 장혜성
● 봉행위원장 : 총무원장 윤송정
● 봉행부위원장 : 감사원장 김영각
● 집행위원장 : 사무총장 이보성
● 집 행 위 원 : 이혜경, 권묘각, 권마하, 강영운, 박혜종, 전법일, 정동성, 이해산

● 봉 행 위 원(무순)
박영탄, 김청화, 육보화, 장성혜, 전지연, 윤무명, 윤천명, 한해일, 이법천, 허승천, 이능인, 김도성, 정정담, 황법연, 진혜운, 김원광, 윤지원, 최지후, 신금강, 김혜법, 박지인, 박수현, 최혜연, 주행각, 오덕환, 이도천, 이해일, 임혜동, 권도성, 조월상, 황지은, 김남일, 장영민, 이법령, 김영욱, 강혜도, 하영담, 오운산, 김행인, 강원성, 최만성, 엄혜연, 김지산, 이극봉, 이주일, 김혜승, 이혜동, 박법광, 조법화, 박백운, 노수덕, 이무초, 조득봉, 지도심, 유혜문, 정일찬, 천동민, 김혜법, 윤도명, 박공적, 김수명, 이평등, 오금당, 정용수, 이학산, 김만법, 오진성, 김관각, 이선광, 박향림, 김명덕, 이용경, 박향성, 박금신, 오수심, 김범심, 이자운, 박가지, 김심공, 오향화, 김남전, 박운심, 김홍각, 이묘훈, 김원각, 박홍심, 이묘정, 김청담, 오경신, 김본각, 박청도, 이경안, 김성담, 하혜인, 표관지, 김심담, 이향인, 박담행, 이해일, 오심일, 박원명, 김홍신, 이무상, 정법인, 김각운, 이선문, 이정정, 문청정, 이법화, 김정진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제 3세 종정취임 대법회 봉행위원장 윤송정